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8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7.03~2025.07.09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7
■ 중국		
-	중국 산시성, 기술 혁신 기반 수소에너지 전체 산업망 구축 가속화	7
-	중국 헤이룽장성,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17개 정책 발표	7
-	베이징의 디지털 경제 산업 혁신 지수 중국 내 1위 기록	8
-	중국 9개 부처, 농촌 노동력 가사 서비스 분야 취업 촉진 방안 발표	9
-	중국 푸젠성, 2027년까지 문화관광산업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	9
-	2025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340여 개 정책 속 안정화 신호	10
-	중국 여러 지역, '새로움'과 '트렌드'를 겨냥한 신규 소비 진작책 발표	11
-	2025 상하이협력기구 디지털 경제 포럼, 7월 텐진에서 개최 예정	11
-	중국 최초, 기업 환율 리스크 관리 위한 신규 금융 서비스 저장성에서 시행	12
-	상하이 '동방미곡' 화장품 산업 지원 위한 중국 최초의 해관 조치 발표	13
■ 일본		
-	도쿄 이즈제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구상 실현 위해 본격적인 조사 착수	13
-	일본 효고현, 35개 전 금융기관과 현 경찰이 특수사기 방지 협정 체결	14
-	일본 지자체, 메타버스 활용해 지역 홍보 및 관계인구 창출에 박차	15

- 일본 생협 코프고베, AI 도입으로 배송 경로 최적화 및 인력난 대응 15
-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 기업의 사업 재건 및 확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16
- 2025년 상반기 일본 호쿠리쿠 3현, 기업 도산 102건으로 증가 17
- 일본 후쿠오카시, 사회적 기업가 지원 위해 '고향납세' 제도 활용 17
- 일본 센다이시, 산학의 협력으로 온라인 진료차 기술 고도화 추진 18
- 일본 지바시, 2026년부터 중고차 판매점의 미운행 경차 비과세 결정 19
- 2025년 일본 후쿠오카현 기업 임금 인상률 5.63%, 15년 이래 최고치 20

■ 태국

- 세계은행,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20
- 태국,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체계 시행 21
- 태국,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세에 따라 연간 목표치 하향 조정 22

■ 미얀마

- 미얀마 군정, 경제 활성화 및 수출 증대 위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22

■ 베트남

- 베트남-미국, 신규 무역협정 체결로 20% 관세 부과 합의 23

■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청, 대규모 자금세탁 연루된 9개 금융기관에 거액의 제재금 부과 24
- 싱가포르-캄보디아, 수교 60주년 맞아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24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영유권 분쟁 지역 암발랏 해협 공동 관리 합의 25

- 인도네시아, 세수 부진 및 신정부 정책으로 2025년 예산적자 전망치 상향 26

■ 캄보디아

-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태국산 석유제품 수입 전격 중단 26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산시성이 과거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독자 개발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수소 생산 및 유기액체 저장 기술로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 이를 바탕으로 수소 트럭과 버스를 상용화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성공하며 수소에너지 전체 산업망 구축을 가속화함
- ✓ 중국 헤이룽장성이 지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항공우주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함. ‘완성기+부품+서비스’의 통합 발전을 목표로 하는 17개 신규 정책을 발표하며, 국방 중심에서 민간 및 상업용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중국 디지털 경제 산업 혁신 평가 보고서’에서 베이징이 풍부한 과학 기술 자원과 혁신 기업의 집적 효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산업 혁신 지수 전국 1위를 차지함. 보고서는 동부 연안 지역의 뚜렷한 강세와 함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 중국 상무부 등 9개 부처가 농촌 인력의 도시 가사 서비스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가사 서비스 농업 진흥 방안’을 공동 발표함. 전문적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주택 보장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농촌 노동력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 ✓ 중국 푸젠성이 2027년까지 문화관광산업을 지역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함. 이를 위해 여름 성수기를 겨냥하여 3,600여 개의 문화관광 행사와 270여 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규모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섬
- ✓ 2025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은 340여 개의 완화 정책에 힘입어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세를 유지함. 그러나 신규 주택은 고품질의 개선형 주택 위주로, 중고 주택은 가격 하락을 감수한 거래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도시와 상품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 ✓ 중국 여러 지방 정부가 변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패션, 야간 경제 활성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국潮(귀차오)' 상품화 등 '새로움'과 '트렌드'를 겨냥한 신규 소비 진작책을 발표함. 이를 통해 단기적인 소비 촉진과 장기적인 산업 공급망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함
- ✓ 중국 텐진시에서 7월 10일 '2025 상하이협력기구(SCO) 디지털 경제 포럼'이 개최될 예정임. 이번 포럼에서는 회원국 간 디지털 인프라의 물리적 연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규칙의 제도적 연결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경 간 금융 서비스 플랫폼에 온라인 담보 신용보강 계약 기능을 시범 도입함. 저장성 저장은행이 이를 통해 전국 최초의 시범 업무를 단 하루 만에 완료하며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입증함
- ✓ 중국 상하이 해관이 '동방미곡' 화장품 산업단지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산업 특화 무역 편리화 조치를 발표함. 검사 절차 간소화, 혁신적 감독 모델 도입,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통관 장벽을 낮추고 자국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함

○ 일본

- ✓ 일본 정부가 도쿄 이즈제도를 기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가장 큰 과제인 어업 관계자 등 지역 사회의준비구역'으로 공식 지정함. 이에 도쿄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사업합의를 얻기 위해 본격적인 실태 조사와 주민 설명회 절차에 착수함
- ✓ 일본 효고현 내 35개 모든 금융기관과 현 경찰이 급증하는 특수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업무 협정을 체결함. 의심 계좌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조사를 통해 범죄 수익의 흐름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등 선제적인 예방 및 검거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

- ✓ 일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메타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지역 홍보, 교육 지원, 관계인구 창출 등을 목표로 가상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도도부현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함
- ✓ 일본의 대형 생협 코프고베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송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함. 이를 통해 전체 차량의 주행 거리를 10%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여 확보된 인력을 핵심 업무에 재배치함
- ✓ 일본 이시카와현이 노토반도 지진 피해 기업의 성공적인 재건을 돕기 위해 '챌린지 지원 보조금' 1차 지급 대상을 확정함. 선정된 27개사는 숙박업 진출, 개인 고객으로의 판로 확대 등 기존 사업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광고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됨
- ✓ 2025년 상반기 일본 호쿠리쿠 3현의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건 증가한 102건을 기록함. 이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 경영을 압박한 결과이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도산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일본 후쿠오카시가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소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시민들은 다태아 육아 지원 앱 개발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기부하며 공감을 표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확보함
- ✓ 일본 센다이시가 의사 부족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진료차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임. 위성 통신을 도입해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원격 의료기기 성능을 개선하며 대면

진료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실증 사업을 반복함

- ✓ 일본 지바시가 2026년부터 중고차 판매점에 상품으로 전시되어 실제 운행되지 않는 경자동차에 대해 경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함. 사업자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등록 절차를 줄여주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납차 기간 단축 및 잠재적인 가격 인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음
- ✓ 2025년 일본 춘계 노사교섭(춘투) 결과, 후쿠오카현 내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5.63%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끈질긴 교섭의 성과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상률이 크게 상승한 점이 주목됨

○ 태국

- ✓ 세계은행이 태국의 수출 부진 심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 침체, 그리고 총리 직무 정지 가능성과 예산 편성 지연 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주요 근거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1.8%로 대폭 하향 조정함. 이는 경제 둔화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 태국이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체계를 시행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된 임금을 적용함. 방콕, 푸껫 등 주요 관광지는 일일 400바트로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됨
- ✓ 2025년 상반기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이 연간 관광객 유치 목표치를 기존 3,75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함. 이는 팬데믹 이후 기대했던 관광산업의 완전한 회복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임

○ 미얀마

- ✓ 미얀마 군정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농축산업의 현대화를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특히 수입품을 대체하고 고품질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육성으로 외화 수입 증대를 계획함

○ 베트남

- ✓ 베트남이 미국과의 수개월에 걸친 무역 협상을 통해, 당초 46%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던 고율 관세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함. 대신 베트남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상호 간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절충안을 마련함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2023년에 발생한 3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시티은행, UBS 등 9개 국내외 금융기관에 총 2,745만 싱가포르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며 금융 허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
- ✓ 싱가포르와 캄보디아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아세안 전력망의 핵심 사업이 될 캄보디아로부터의 저탄소 전력 수입 프로젝트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함. 또한, 고품질 탄소 시장 구축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기후 변화에 함께 대응할 것을 약속함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막대한 해양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수십년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어 온 암발랏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함. 양국은 갈등과 대립 대신, 자원 공동 개발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협력의 길을 선택함
- ✓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상보다 부진한 세수 실적과 함께, 새롭게 출범할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료 급식 등 핵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대를 2025년 예산적자 전망치를 GDP 대비 2.78%로 상향 조정함.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기존보다 낮게 수정함

○ 캄보디아

- ✓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해묵은 국경 분쟁을 이유로 최대 석유제품 공급국이었던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전격 중단하는 강수를 뒀. 이 조치는 캄보디아 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태국 정유업계의 수출 판로를 막는 등 양국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산시성, 기술 혁신 기반 수소에너지 전체 산업망 구축 가속화 - 중국 산시성이 수소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 혁신에 집중하며 전체 산업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과거 외국 기업이 독점하던 수소연료전지 스택 설계 플랫폼 기술을 시안교통대학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기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됨 - 산시성은 기술 개발과 더불어 수소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위린시의 제로탄소 산업단지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녹색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 비용을 킬로그램당 45위안에서 25위안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발된 기술과 생산된 수소에너지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시안-웨이난-한청’을 잇는 수소에너지 복도에서는 수소 대형트럭이 활발하게 운행 중이며, 낮은 수소 생산 단가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힘입어 상업적 운행의 균형점을 찾음
	○ 중국 헤이룽장성,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17개 정책 발표 - 중국 헤이룽장성 공업정보화부는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 이번 정책은 항공 장비의 ‘완성기 및 부품’ 협력 발전, 항공 우주산업의 연구개발·제조·서비스 통합 발전, 산업 혁신 강화, 시장 주체의 양적·질적 성장 촉진, 응용 분야 확대 등 5개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헤이룽장성은 중국 내에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역사와 기반이 튼튼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힘. 오랜 기간 국방 및 산업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완성기 제작, 핵심 부품, 주요 소재 등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 - 최근 헤이룽장성은 ‘4567’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산업을 핵심 육성 분야로 지정하고, 민간 및 상업용 항공우주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산업의 민간화, 상업화, 규모화 전환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소비 수요를 견인하고 종합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베이징의 디지털 경제 산업 혁신 지수 중국 내 1위 기록 - 2025 글로벌 디지털 경제 대회 포럼에서 발표된 ‘중국 디지털 경제 산업 혁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이 디지털 경제 산업 혁신 지수에서 중국 전체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함. 베이징은 풍부한 과학기술 자원과 혁신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중국 디지털 경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며,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상하이시가 그 뒤를 이어 1그룹에 포함됨 - 지역별 분석 결과, 동부 연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 산업 혁신 지수가 내륙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수한 지리적 조건, 발달된 교통망, 그리고 강력한 첨단 기술 산업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함. 중서부 및 저개발 지역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인재 양성 강화, 기술 혁신 능력 제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응용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부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개방·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9개 부처, 농촌 노동력 가사 서비스 분야 취업 촉진 방안 발표 - 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9개 정부 부처가 ‘2025년 가사 서비스 농업 진흥 행동 작업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함. 이번 방안은 가사 서비스 공급 확대와 소비 촉진을 통해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4개 분야에 걸쳐 총 14개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함 - 방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 노동력의 가사 서비스 분야 취업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둠.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직업 교육 발전을 가속화하며,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심화시킴. 또한, 통일된 가사 서비스 표준 체계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촌 노동력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함 - 농촌 노동력이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됨. 도시로 진출한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이 동등한 기본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중국 푸젠성, 2027년까지 문화관광산업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 - 중국 푸젠성 당위원회와 정부가 문화와 관광의 깊이 있는 융합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지역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발표된 의견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푸젠성의 문화관광 경제 부가가치를 약 7,5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리고, ‘15차 5개년 계획’ 말기에는 9,000억 위안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여름 휴가철 관광 소비 성수기를 맞아 푸젠성 문화관광청은 전 지역과 연계하여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함. ‘푸젠에 와서 산과 바다의 여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3,60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270여 개의 할인 및 무료 혜택 조치를 마련함. 특히 몰입형 공연, 해변 물놀이, 야간 공연, 농촌 체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스포츠 행사 등 6대 테마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임 - 푸젠성 내 주요 도시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푸저우시는 청년, 가족 단위 연구학습, 산과 바다에서의 피서 등을 주제로 100여 개의 연구학습 관광 상품을 출시함. 찐밍시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활동을, 핑탄 종합실험구는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섬 생활 시즌'을 기획하여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2025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340여 개 정책 속 안정화 신호 - 2025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은 170여 개 지방정부가 내놓은 340개 이상의 완화 정책에 힘입어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세를 유지함. '좋은 도시의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뒷받침했으며, 특히 개선형 주택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신규 주택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도시별, 프로젝트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임 - 신규 주택 시장은 상반기 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기를 띠며,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도시들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과 견고한 구매 수요 덕분에 거래량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특히 120제곱미터 이상의 개선형 주택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30%에 도달하며, 고품질 주택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중고 주택 시장은 '가격을 낮춰 거래를 성사시키는' 양상이 지속됨. 상반기 100대 도시의 중고 주택 가격은 누적 3.60% 하락했으나, 거래량은 활발한 수준을 유지함. 이는 높은 매물량 속에서 가격 조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하반기에는 정부의 더욱 강력한 안정화 정책과 함께 고품질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회복에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여러 지역, '새로움'과 '트렌드'를 겨냥한 신규 소비 진작책 발표 - 중국의 여러 지방 정부가 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식과 유행을 반영한 신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베이징은 패션 소비 확대 방안을, 광시좡족자치구는 심야식당과 같은 야간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산시성은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트렌디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새로움'과 '트렌드'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를 넘어 공급의 최적화와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함.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비 환경 조성이 중점적으로 추진됨 -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과 수요 변화가 맞물리면서 등장한 새로운 소비 형태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소비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의 열정과 구매 의욕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있음
	○ 2025 상하이협력기구 디지털 경제 포럼, 7월 텐진에서 개최 예정 - 중국 국가데이터국과 텐진시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상하이협력기구(SCO) 디지털 경제 포럼'이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텐진에서 열릴 예정임.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연결 고리, 협력의 새 공간 공동 개척'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회원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포럼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의 성과를 준비하고 각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디지털 인프라의 물리적 연결, 데이터 거버넌스 제도의 제도적 연결, 디지털 경제 협력의 마음의 연결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포럼은 개막식 및 메인 포럼과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응용 등 4개의 주제별 포럼 및 관련 체험 활동으로 구성될 예정임.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해외 인사가 참가를 확정했으며, 텐진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각국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텐진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SCO 회원국과의 교류 심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중국 최초, 기업 환율 리스크 관리 위한 신규 금융 서비스 저장성에서 시행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중소기업의 환율 리스크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경 간 금융 서비스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을 시범 도입함. '파생상품 업무 담보 신용보강 계약'이라는 이 기능은 온라인으로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환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저장성의 저장은행이 전국 최초로 이 서비스를 실행함 -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해 수출입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환율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파생상품 거래 시 높은 증거금을 납부하거나 자산 담보를 제공해야 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었음 - 저장은행은 이번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 지원의 모범을 보임. 은행은 '환율 리스크 관리 서비스' 금융 자문 스튜디오를 설립해 기업들에 중립적 리스크 관리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별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상하이 '동방미곡' 화장품 산업 지원 위한 중국 최초의 해관 조치 발표 - 중국 상하이 해관이 '동방미곡'으로 불리는 지역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11가지 맞춤형 지원 조치를 발표함. 이번 조치는 상하이 화장품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자국 브랜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화장품 산업 특화 무역 편리화 조치임 - 발표된 지원 조치는 주로 검사 절차 최적화, 감독 모델 혁신, 서비스 효율성 향상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둠. 수출 화장품에 대해 샘플 채취 후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소량 포장 제품의 샘플 채취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정함 - 또한, 수입 화장품에 대한 분류별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화장품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적인 물류 조정을 용이하게 함. 이외에도 고급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수출 화장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비율을 낮추고, 원격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감독 모델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
일본	○ 도쿄 이즈제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구상 실현 위해 본격적인 조사 착수 - 일본 도쿄도가 이즈제도에 국내 최대 규모인 기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이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감. 최근 일본 정부가 이즈제도 주변 5개 해역을 '준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쿄도는 2025년부터 어업 실태 조사를 본격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등 사업화에 속도를 낼 계획임 - 이즈제도는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풍 지대로 해상풍력 발전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음. 도쿄도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2035년까지 1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성공적인 사업자 공모를 위해서는 2028년에서 2029년경에는 공모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임 - 가장 큰 과제는 지역 주민 및 어업 관계자들과의 합의 형성임. 도쿄도는 이미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시작했으며, 향후 어업 종류, 대상 어종, 조류 및 해양 포유류 생태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일본이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일본 효고현, 35개 전 금융기관과 현 경찰이 특수사기 방지 협정 체결 - 일본 효고현 내 미나토 은행을 포함한 35개 모든 금융기관이 효고현 경찰과 '특수사기 등 검거 및 피해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이번 협정은 급증하는 특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협정에 따라, 현 경찰이 특수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금융기관은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보 조회 및 조사에 신속하게 협조하게 됨. 또한, 부정하게 이용된 계좌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동일 인물이 연루된 다른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2024년 효고현의 특수사기 인지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전년 대비 18%, 4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에 효고현은 특수사기 대책과를 신설하고 자동 녹음 장치를 배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왔음. 이번 금융권과의 전면적인 협력은 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수익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일본 지자체, 메타버스 활용해 지역 홍보 및 관계인구 창출에 박차 - 일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과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지역 과제 해결과 지방 창생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관광 홍보, 교육 지원, 주민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음 - 닛케이글로컬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65.9%에 달하는 31개 단체와 815개 시·구 중 18.0%인 147개 단체가 메타버스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사이타마현의 '버추얼 사이타마', 교토시의 '교토클러스엑스' 등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힘 - 지자체들은 메타버스의 몰입감과 익명성, 시공간 제약이 없는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홋카이도는 등교 거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공간 '메타☆캠퍼스'를, 아키타현은 24시간 언제든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가상 근대미술관'을 개설함.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메타버스 관계인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일본 생협 코프고베, AI 도입으로 배송 경로 최적화 및 인력난 대응 - 일본의 대형 생활협동조합인 코프고베가 배송 효율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함. 나고야대학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옵티마인드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배송지의 주소, 시간, 물량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수분 내에 최적의 배송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전체 주행 거리를 약 10%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던 택배 수요가 이후 일부 지역에서 급감하면서 비효율적인 배송 경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음. 기존에는 숙련된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경로를 재조정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AI 시스템 도입으로 누구나 쉽게 효율적인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줄어든 업무 부담 덕분에 관리직 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됨 - 이번 AI 도입은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DX) 전략의 일환임. 생활협연합회는 이 외에도 조합원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카탈로그를 배포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코프고베의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 생협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일본	○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 기업의 사업 재건 및 확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일본 이시카와현이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기업들의 사업 재건과 새로운 사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챌린지 지원 보조금'의 1차 지급 대상을 발표함. 총 2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지급 결정액은 약 6,600만 엔에 달함. 이 보조금은 기업들이 기존 사업을 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 등을 판매하던 소매업체는 복귀 지원 인력들의 숙박 수요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숙박업에 새롭게 진출함. 또 다른 사례로는, 기존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택 설비를 판매하던 기업이 개인 고객으로 판매 대상을 넓히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는 경우가 포함됨 - 보조금은 와지마시, 스즈시 등 피해가 컸던 6개 시와 정(町)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광고 선전비 등을 지원함.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이며, 보조율은 소규모 사업자가 3분의 2, 중소기업이 2분의 1임. 이를 통해 지진 피해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2025년 상반기 일본 호쿠리쿠 3현, 기업 도산 102건으로 증가 - 도쿄상공리서치 가나자와 지점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일본 호쿠리쿠 3현(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의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건 증가한 102건으로 집계됨. 이러한 증가는 주로 인력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제조업 분야에서 도산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함. 부채 총액 또한 대규모 도산 발생으로 인해 약 2배 증가한 190억 7,700만 엔을 기록함 - 현별로 살펴보면, 도야마현이 7건 증가한 40건, 후쿠이현이 6건 증가한 28건으로 도산이 늘어난 반면, 이시카와현은 2건 감소한 34건을 기록함.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0건), 제조업(18건)이 그 뒤를 이음. 특히 제조업의 도산 건수는 전년 동기 8건에서 18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 도쿄상공리서치는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연료비 등 비용 증가가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어 도산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다만, 2024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도산 건수가 11건 감소하여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그러나 지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영업 기회 상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해 앞으로도 일정 수준의 도산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후쿠오카시, 사회적 기업가 지원 위해 '고향납세' 제도 활용 - 일본 후쿠오카시가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신생 기업, 즉 '소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특정 사회적 기업가를 지정하여 기부(납세)하면, 그 자금이 해당 기업의 사업 자금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2024년부터 시작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2025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노(pono)'는 쌍둥이나 세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맘즈(moms)'를 개발하고 있음. 대표 스스로가 쌍둥이 엄마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태아 육아 부모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기부 목표액은 750만 엔으로, 앱 기능 개발에 사용될 예정임 - 후쿠오카시는 2012년 '스타트업 도시 선언' 이후 기업 육성에 힘써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가치의 '높이'와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소셜' 가치를 두 축으로 삼고 있음.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유망한 소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함
	○ 일본 센다이시, 산학의 협력으로 온라인 진료차 기술 고도화 추진 - 일본 센다이시가 인구 감소와 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진료차의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NTT 동일본, 도호쿠대학, 센다이시 의사회 등 산업, 학계, 의료계가 협력하여 원격 조작 의료기기를 개선하고 대면 진료에 가까운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온라인 진료차에는 혈압계, 심전도계, 휴대용 초음파 진단 장치 등 다양한 의료기기가 탑재되어 있음. 특히 고화질 화면과 음향 기술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지연 없는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특징임. 환자들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음. 산간 지역 등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했으며, 원격 청진 시 미세한 잡음을 듣기 어려운 전자 청진기의 성능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센다이시는 향후 온라인 복약 지도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인 주택 등을 중심으로 수진자 수를 늘려갈 계획임
	○ 일본 지바시, 2026년부터 중고차 판매점의 미운행 경차 비과세 결정 - 일본 지바시가 2026년부터 중고차 판매점에 상품으로 전시되어 실제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경자동차에 대해 경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함. 사업자가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사진으로 제출하여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조치로 시의 세수는 일부 감소하지만, 소비자의 편의 증대와 판매업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 현재 판매점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 차량의 등록을 일시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차량 판매 시 재등록과 차검 재취득 절차가 필요해져 소비자에게 차량이 인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차검이 남아있는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나 납차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이번 결정은 업계 단체의 요청을 받아 2022년부터 검토를 시작한 결과물임. 시는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마련함에 따라 제도 시행을 결정함. 사업자는 대당 최대 12,900엔의 세금을 면제받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하마마츠시 동쪽의 정령지정도시 중에서는 사이타마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2025년 일본 후쿠오카현 기업 임금 인상률 5.63%, 15년 이래 최고치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후쿠오카 지부가 2025년 춘계 노사교섭(춘투) 결과, 후쿠오카현 내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5.63%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함. 이는 기본급 인상(베이스업)과 정기 승급을 합산한 수치로, 비교 가능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월평균 임금 인상액 역시 16,137엔으로 전년 대비 281엔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함 - 이번 결과는 138개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전국 평균 임금 인상률인 5.25%를 상회하는 수치임. 그러나 금액 면에서는 전국 평균인 16,356엔에 미치지 못했음. 특히 조합원 300인 미만의 중소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률이 5.17%로 전년 대비 0.62% 포인트 상승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점이 주목됨 - 연합 후쿠오카의 후지타 케이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교섭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함. 이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본 것으로,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임금 인상 흐름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됨
태국	○ 세계은행,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세계은행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과 2026년 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8%와 1.7%로 대폭 하향 조정함. 이는 지난 2월에 발표했던 전망치인 2.9%와 2.7%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로, 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작년 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5%는 이미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었음 - 세계은행은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부진, 중국인 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 침체, 그리고 내수 부진을 지목함.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수출과 관광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2026년 2분기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석됨. 현 총리의 직무 정지 가능성과 2026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 지연 우려가 공공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태국 수입품에 36%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하여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태국,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체계 시행 - 태국 정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체계를 공식적으로 시행함. 지난 6월 17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삼자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새로운 임금 체계는 태국 내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되며,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임 - 새로운 체계에 따라, 주요 관광지와 일부 산업 지역의 최저임금은 일일 400바트(약 1만 6,832원)로 설정됨. 해당 지역은 2~4성급 호텔과 유흥업소가 밀집한 방콕, 촌부리, 푸켓, 수랏타니 주의 코사무이 등임. 반면, 치앙마이와 송클라주의 일부 지역은 380바트, 나라티왓 등 남부 국경 지역은 337바트로 가장 낮은 수준이 적용되어 지역별 격차를 둠 - 법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지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짐. 1998년 노동보호법에 따라 정상적인 일일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되며,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특정 업무의 경우 7시간으로 단축 적용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 태국,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세에 따라 연간 목표치 하향 조정 - 2025년 상반기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6% 감소한 약 1,661만 명에 그치면서, 관광 산업 회복에 경고등이 켜짐.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25만 명으로 뒤를 이었으나, 전반적인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 이는 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관광 부문의 둔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임 - 이러한 관광객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태국 중앙은행(BoT)은 2025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기존 3,75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함. 수출은 일부 증가세를 보였으나, 관광 부문의 둔화와 제조업 생산 감소가 맞물리면서 5월 태국 전체 경제는 약세를 면치 못함.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약 4,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현재의 관광객 감소세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완전한 회복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를 보여줌.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는 새로운 관광객 유치 전략과 내수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미얀마	○ 미얀마 군정, 경제 활성화 및 수출 증대 위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국가경제발전조정회의에서 농업과 축산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미얀마의 농업 수출액이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농업 현대화의 시급성을 역설함. 이는 국가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 - 군정은 2025-26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전년 대비 52억 달러 증가한 816억 달러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임. 특히 수입품을 대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미얀마	하고 국내 경제를 강화하며, 고품질 수출품 생산을 통해 외화 수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둬. 면화, 대나무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발전이 핵심 전략임 -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의 풍부한 노동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을 주문함. 또한, 국경 지역에서 만연한 불법 무역과 천연자원 무단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가 자원의 유출을 막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베트남	○ 베트남-미국, 신규 무역협정 체결로 20% 관세 부과 합의 - 베트남이 미국과의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협정에 따라, 베트남산 수입품 대부분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이는 당초 미국이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제안했던 46%의 고율 관세에 비하면 크게 완화된 수준으로, 베트남이 협상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협정에서 베트남은 관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특히,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여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임 - 당초 46%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베트남의 주력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최종적으로 20%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베트남 통상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청, 대규모 자금세탁 연루된 9개 금융기관에 거액의 제재금 부과 - 싱가포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통화청(MAS)이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 시스템에 결함이 발견된 9개 금융기관에 총 2,745만 싱가포르달러(약 294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함. 이번 조치는 2023년 8월, 약 3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불법 자산이 압수되었던 외국인 연루 자금세탁 사건의 후속 조치로, 금융 허브로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 제재 대상에는 시티은행, UBS, 크레딧 스위스, UOB 등 세계적인 은행들과 현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가 포함됨. 통화청은 이들 금융기관이 고객의 위험도를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함 -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들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 이행을 약속하고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통화청은 해당 기관들이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을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번 사건은 싱가포르가 불법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줌
	○ 싱가포르-캄보디아, 수교 60주년 맞아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싱가포르와 캄보디아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갖고, 재생에너지와 탄소시장 구축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함. 로렌스 윈 싱가포르 총리는 프놈펜을 방문하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함. 이는 아세안 내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싱가포르의 외교 정책을 반영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 특히, 링 총리는 캄보디아로부터 저탄소 전력을 수입하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아세안 전체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힘. 또한, 양국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고품질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합의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함 - 링 총리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싱가포르가 역내 단결과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함.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넘어, 아세안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영유권 분쟁 지역 암발랏 해협 공동 관리 합의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암발랏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합의는 양국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면서 분쟁 대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암발랏 해협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해양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지역임. 이번 공동 관리 체제 구축은 해협 내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탐사하고 개발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양국이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라보워 대통령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 후 이루어진 이번 합의가 양국 국민 모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결정임을 강조함. 양국 정상외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해양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해결에 있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양 안보와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 네시아	○ 인도네시아, 세수 부진 및 신정부 정책으로 2025년 예산적자 전망치 상향 -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2025년 예산적자 전망치를 당초 국내총생산 (GDP) 대비 2.5%에서 2.7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정은 예상보다 부진한 세수 실적과 함께, 새롭게 출범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신정부의 핵심 정책에는 8천만 명 대상 무료 급식, 연간 300만 호 저가 주택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확대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약 85조 6,000억 루피아를 활용할 계획임.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 압박을 완화하고,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이를 통해 국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예산적자 확대 발표와 함께,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5.2%에서 4.7~5% 범위로 하향 조정함.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발표 직후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와 주가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
캄보디아	○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태국산 석유제품 수입 전격 중단 -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을 이유로 태국으로부터의 모든 석유제품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태국은 그동안 캄보디아의 최대 석유제품 공급국으로서 하루에 약 600만 리터를 수출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캄보디아의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송비가 저렴했던 태국산 석유제품 대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이는 필연적으로 운송 비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상승으로 이어져 캄보디아 내 유가 인상 및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캄보디아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음 - 태국의 석유업계 또한 주요 수출 시장을 잃게 되어 대응책 마련에 나섬. 태국 에너지사업부는 정유사들이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 물량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체 시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시설 정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됨. 이번 사태는 양국 경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